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 전국에 소개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

시, 대한민국 심포지엄 참가... 김승수 시장 '도시재생 5시티 스타' 스페셜 브리핑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정책과 사담·생태·문화가 녹아든 도시재생 등 전주시의 우수정책들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이 주관하는 각종 도시정책 공론의 장에서 전주시의 우수정책 사례를 배우기 위한 초청이 잇따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17일 서울 용산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에 초청돼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을 주제로 전주형 주거복지 정책과 사회주택 사례를 전국에 소개했다.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 실질과 가치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중앙과 지방 정부, 지역주민과 학

계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이날 스페셜 브리핑에 나서 △전주시 주거복지 주요정책 방향 △주거복지 정책 추진경과 △전주시 사회주택의 비전과 목표 △전주시 사회주택 공급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주거복지와 신설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주거복지 공공건축가 운영 △부도입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주택 수리비 지원 등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 중심의 전주형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시는 오는 19일에도 시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모

임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시청에서 열리는 '제2차 심포지엄'에도 참석해 우수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김승수 전주시장이 상임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현정 전주시 정책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해 시민들을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행복정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앞서, 김 시장은 지난해 10월 세계적 석학과 정부 관료, 정치 지도자, 시민사회 활동가, 기업인, 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9회 '2018 아시아미래포럼'에서 강연자로 초청돼 전주형 포용성장 지역순환경제 사례 등 전주시 우수정책을 소개해왔다. /송효철 기자

새 검찰총장 후보에 윤석열

주요 적폐 수사 지휘... 靑 "적폐청산·검찰개혁 완수 기대" 법무부→인사혁신처→국무회의→국회 인사청문 순 절차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후보자는 검찰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권력의 위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며 후보자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윤 후보자는 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혁신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대전고검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과격 승진했다. 승진과 동시에 고검장이 맡아오던 서울중앙지검장에 부임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강골'이자 특수 탐사로 평가받는 윤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농단 사건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까지 주요 적폐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청와대의 신임을 얻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4기수를 뛰어넘는 과격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적폐청산 수사와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자의 지명으로 물러날 윗기수를 통해 자연스레 인적 쇄신을 꾀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고 대변인은 "검찰 개혁, 조직 쇄신 과제 등 그동안 보여줬던 부정부패 비리 척결에 대한 확고한 수사 의지 등이 반영돼 윤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윤 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함에 따라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에 후보자 지명 내용을 송부한다. 법제처는 오는 18일 국무회의에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뉴시스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전주 탄소산업, 스웨덴에서 경제협력 논의

문 대통령 참석 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탄소융합기술원장 등 참여 기술원, 스웨덴 국립 연구기관과 탄소복합재 협력 MOU도 체결

전주시의 탄소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 스웨덴 공동협력 경제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방윤혁 원장이 참여해 RISE SICOOP AB(스웨덴 복합재 연구소)와 탄소융합산업에 관한 공동연구와 시장개척, 인력 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술원은 이날 MOU체결로 탄소 소재개발부터 부품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중인 스웨덴 복합재연구소와

향후 탄소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스웨덴 복합재연구소는 탄소복합재 자동차 시스템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곳으로, 기술원은 이번 MOU를 바탕으로 자체 보유한 탄소섬유 제조 및 성형기술과 스웨덴 복합재연구소가 보유한 자동차 기술 및 저가형 탄소섬유 개발 니즈를 고려한 공동연구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방윤혁 원장은 지난 12일에는 네덜란드 Netherlands Aerospace Center(NLR)를 방문, 국내에 취약한 항공기용 탄소복합재 분야의 공동연

구개발 및 탄소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이번 한국-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참석을 통해 탄소복합재 분야의 글로벌 전문연구기관과 상호 강점 분야 및 니즈를 반영한 공동협력방안을 도출했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탄소산업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비즈니스 서밋 행사는 문 대통령과 방윤혁 기술원장을 비롯, 삼성전자와 LG화학 등 한국 경제인 대표 100여명과 에릭슨, 볼보, 이케아 등 스웨덴 기업인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송효철 기자

완산도서관, 매주 목요일 '다문화 체험의 날' 운영

매주 목요일 전주시립 완산도서관을 방문하면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완산도서관은 오는 20일 도서관 다문화자료실에서 예일유치원 원아 25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체험의 날'을 개최하고 베트남 이주민 강사와 함께 동화읽기와 전통놀이체험 등 베트남 문화에 대해 배우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다문화 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위해 마련된 '다문화체험의 날' 행사는 오는 10월까지 총 2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하면 △감보디아 △일본 △중국 등 8개국 이주민 강사가 도서관에 방문한 유아들을 대상으로 고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전통의상 입어보기 등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간부공무원들은 17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정부부처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국가예산 확보 기재부 공략

김양원 부시장 등 전주시 간부공무원, 기재부 찾아 현안 건의

전주시가 더 많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편성 작업에 착수한 기획재정부 설득에 나섰다.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10여명은 17일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국가예산을 정부부처안에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먼저, 김 부시장은 기재부 지역예산과를 찾아 한 해 1000만명 이상 전주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전북 관광발전의 심장부 역할을 할 글로벌 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교육예산과를 방문해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산학융합플라자 건립을 위한 국비 20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전주동물원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증설 △전주시 도시농업 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주요 중점관리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김승수 전주시장 등 지휘부와 국소장들이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을 다 할 계획"이라며, "정치권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가에 산 반영이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꾸준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29일 '우리가족 해피 워켄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가족기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우리가족 Happy Weekend '제3차 하나뿐인 나의 웃 반 짝이는 개성을 잃어버려?' 3차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리가족 Happy Weekend프로그램은 센터가 지난 2017년 실시한 '전주시 청소년 학업중단위험 실태조사 연구'에서 각 가정에서의 정서적 지원이 학업 중단 위험률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실태조사 연구 이해를 위한 지난해부터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윤석열 지검장 "무거운 책임 느껴" ... 소감 밝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총장 후보 지명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윤 지검장은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윤 지검장은 취재진을 향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여러 가지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 수사관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

차 여러분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다 생각한다"며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윤 지검장을 문무일(58·18기) 현 검찰총장의 후임이자 43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윤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강골'로 이름을 널리 알린 인물이다.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이끌다가 검찰 수뇌부와 정면으로 부딪힌 전력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토석 불법 채취한 석산 개발업자 징역 1년

허가를 받지 않고 야산에서 토석을 불법 채취한 석산 개발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북 진안군의 한 야산에서 개발 허가범위를 초과해 1만 5000여㎡의 토석을 채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진안군청으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한 면적과 양이 매우 많다"며 "동종전과가 4차례 있는 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당시 현장에서 사면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군산시내 한 성당서 성경책 불 태운 만취 30대 검거

술에 취해 성당에 들어가 성경책을 불 태운 30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조물방화 혐의로 A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 30분경

군산시내 한 성당에 들어가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성경책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목격한 성당 관리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강석훈 기자

김철승 예수병원장 새 집행부 구성

17일부터 예수병원 제24대 병원장 업무를 시작한 김철승 신임 병원장은 각 부서를 이끌어갈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이날 아침 직원 예배시간에 새로운 부서장들을 직원들에게 소개했다.

김철승 병원장은 예수병원 각 부서의 책임을 맡을 새 집행부에 부원장 조진웅, 기획조정실장 윤용순, 기획조정실 차장 박영신(유임), 진료처장 백수경, 진료처 부처장 이민희, 가족의학연구소장 류재영, 기독교학연구소 부원장 선인오, 교육부장 김효준, 교무부 차장 이광재, 대외협력부장 천민우, 의학박물관장 주병진, 암센터장 김갑태, 응급의료센터장 김호권, 재활센터장 윤석봉(유임), 간호부장 이순복, 행정부장 이상희(유임)를 임명했다. /김명태 기자

법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maeil.com에서